

문의 : 서현일 홍보과장 02-6203-1999, seo1@gamek.or.kr

안병도 선임연구원 02-3477-2717, anoa97@gamek.or.kr

배포일 : 2017.3.29.(수) 11:00

총 매수 : 2매

(* 본 보도자료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작통’ 온라인 게임 근절을 위한 포럼 개최

- 불법게임물로 인한 피해규모, 제공방식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근절방안 논의

(사)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오는 4월 3일(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불법게임물(사설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국회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이 주최하며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가 공동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다.

포럼은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설서버 및 위변조 프로그램 처벌법의 6월 21일 시행에 앞서 실효적인 사후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주요내용은 불법사설서버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규모와 제작·유통 현황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후관리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향후 불법게임물의 근절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려대 김휘강 교수, 경희대 유창석 교수, 게임위 이종배 팀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세션에서는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이 좌장을 맡으며 경찰청 하승우 경감과 엔씨소프트 장현영 팀장,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석원호 Legal Manager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동섭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불법게임물의 실효적인 단속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며 “게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입법활동을 통해 건강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조직적이고 대담한 짝퉁게임물 유통범죄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게임산업이 멍들고 있다” 며 “이번 개정법은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국회, 정부, 산업계가 함께 모여 빠르게 풀어낸 좋은 사례인 만큼, 이번 개정법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 고 전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불법게임물 운영에 따른 피해방지 및 건강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하여 향후 게임업계도 불법게임물 근절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 강조했다.